

법률복지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고통받는 이웃’들이 쉽게 찾아와 마음 놓고 하소연하고 쉴 수 있도록
‘상담원 자체회관’ 마련이 절실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조력·소송구조를 해드립니다.

• 상담방법 : 면접, 전화, 서신, 지상, 출장, 온라인상담

• 상담안내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야간) 매주 월요일 오후 6~9시 (접수 오후 8시까지)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4층 (☎08020) 전화 : 2697-0155, 3675-0142~3 / 팩스 : 3675-0175
전화 : 2646-1611 (교육원)

www.lawqa.or.kr / E-mail: LawQA@naver.com

상담원의 일곱 번째 지부, 광주광역시에 개원

지난 11월 22일 광주지부 개원식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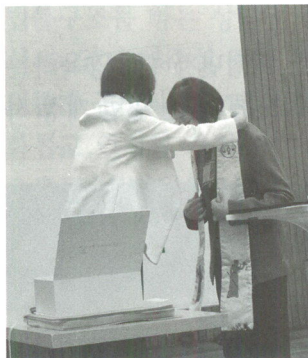
상담원의 일곱 번째 지부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원했다.
서울 중심의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방의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에게도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되어 온
상담원의 지부개설사업이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개원식은 11월 22일 (금) 오후 2시에 광주YWCA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원식은 김소울 변호사의 사회로 신정자 본원 설립발기위원장의 개회선언, 문경자 광주지부 이사장(지부 발기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되었다.



기념사 중인 양정자 본원 원장

양정자 원장은 기념사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의 성지로써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며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은 민주와 인권, 교육, 문화, 평화의 도시로 이곳에 상담원의 일곱 번째 지부가 개설됨은 매우 감격스럽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평등과 정의의 사회 실현을 위해 광주에 뿌린 씨앗이 광주시민들에 의해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톨을 걸어주는 모습



취임사 중인 전성연 지부 원장

기념사 후 양정자 원장은 광주지부의 전성연 원장을 인증하는 스톨을 걸어주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전성연 원장은 노년에 고향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영광스럽지만 부족함이 많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상담원은 이익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법을 통한 봉사기관”임을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의 후원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후 양정자 원장이 문경자 이사장에게 상담원 깃발을 전달하자 문경자 이사장은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 광주지부의 개원을 알렸다.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을 비롯하여 약 60여명의 지역민과 각계 인사가 참석한 이날 개원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기홍 제2대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경천 전 국회의원,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노은미 광주YWCA 회장이 개원 축하를 하였고, 축사가 끝난 후에는 안영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이 광주지부의 무궁한 발전과 개원식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축도를 하였다.

이어 정구태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의 사회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왼쪽부터) 정대철 헌정회장, 이기홍 변호사, 김경천 전 의원, 장정희 변호사, 노은미 광주Y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가 “법률구조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호남 지방의 대표적 도시인 광주에 상담원 지부를 개원하게 된 것에 축하를 전한 송상현 명예교수는 ‘법원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가 (Curia pauperibus clausa est)’라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된 법률구조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법에의 접근(access to law)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게 되었고, 이는 법률적 권리로 보는 접근방법과 사회복지권으로 보는 접근방법의 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자는 목표와 방법이 서로 달라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되므로 문화적·관습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별강연 중인 송상현 명예교수

개원식에 참석한 내외귀빈들은 식이 끝난 후 광주지부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현판식을 갖고 개원 축하 케이크 커팅을 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26, 2층에 있다. ☎ 062-513-1361~2



개원식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들

